



대학주보

초유의 부정투표 사실로...확운위 '선거 무효' 가결 '퀘스트' 선본 징계 확정, 해당 선본원 징계는 미정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서울】KHU:EST(퀘스트)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안건이 지난 4일 제2차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가결됐다. 퀘스트 소속 선본원이 무용학부관 기표소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투표한 사실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 4일 열린 제2차 임시 확운위는 총학생회 선거 '당선 무효' 안건을 찬성 68표(71.6%), 반대 11표(11.6%), 기권 16표(16.8%)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퀘스트 선본원의 부정투표 사실을 확인해 퀘스트 당선을 보류하고, 이후 당선 무효 안건을 확운위에 상정했다.

부정투표는 총선거 2일 차인 지난 25일 오후 1시경 발생했다. 무용학부관 기표소 선관위원이 기표소를 잠시 비운 사이 퀘스트 선본원 A 씨가 무용학부 유권자 명의로 17건의 투표를 대리 행사했다.

이후 명의를 도용당한 무용학부 소속의 B 씨가 투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이 이미 행사됐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B 씨는 지인이 소속된 Knowhow(노하우) 선본에 이를 알렸고, 노하우

는 개표날 이를 중선관위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개표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가량 늦게 시작했다. 당시 중선관위원회 측은 개표 지연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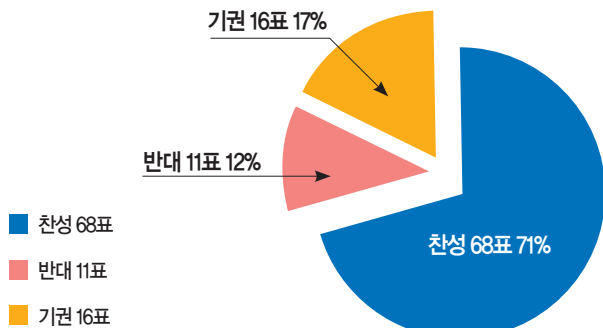
이후 무용학부관 기표소 부정투표 사실이 공개되자, 중선관위는 기표소 촬영 CCTV 전수조사를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영대 기표소에서도 선거기간 3일 동안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선관위원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투표가 발생했던 무용학부관 기표소에는 첫째 날에도 선관위원이 오전 중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진(무용학 2023) 무용학부 선관위원장은 "(부정행위가 일어난) 당일에는 무용학부 3학년의 공연일이었기 때문에 학생회 인원이 선관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업무가 동일 시간대에 몰리며 관리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미흡으로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선관위원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 체계를 명확히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임시 확운위에서 각 총



② 선거 무효 안건에 대한 확대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①제58대 총학생회 현장 투표 기표소. ②제2차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68표(71%)로 선거 무효가 가결됐다. (사진=이서현 기자)

학생회 후보 선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엄규민(경영학 2020) 위원장 대독을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노하우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당선 무효와 재선거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퀘스트 후보

자·선본원, 선거 관리를 책임진 선관위원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퀘스트는 "구성원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사안이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근거는 세척상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부정투표를 저지른 퀘스트 측 선

본원과 당시 기표소에 부재했던 무용학부 선관위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엄 중선관위원장은 "세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선거법이나 학칙을 준용해야 한다"며 "징계 방안은 추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도용돼 투표권을 빼앗긴 무용학부 학생들은 사건의 정확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C 씨는 "내 표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처음엔 실감하기 어려웠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D 씨는 "일부의 위법행위로 무용학부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총학 보궐선거는 내년 3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재투표나 재선거는 시행되지 않는다.

'선거 무효' 관련 4개 단위 인터뷰 >> 2면
현행 선거 관리 방식 점검 기획 >> 3면

'میم'처럼 소비되는 혐오, 내 안의 극우를 깨우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내안의극우' ①
극우란 무엇인가, 일상속 극단적 정서

최근 청년들의 일상 언어와 정서에서는 '농담'과 'میم'의 형태로 혐

오와 조롱이 오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타인을 향한 배제와 적대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됐다. 이번 연재 기획은 우리 안에 내재된 혐오의 감정이 어떤 구조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언어 · 정서 · 행동에 스며드는지 알아본다. 나아가 청년 극우화 현상과의 관련성을 짚어본다. 1화차에서는 청년 일상 속 '극단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무심코 내뱉는 말과 가벼운 농담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흐름을 알아봤다.

"'틀딱', '분탕'도 일베 용어였어? 전혀 몰랐네요..." A 씨는 자신이 쓰던 표현의 출처를 뒤늦게 알고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친구들과끼리 가볍게 쓰던 단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롯된 혐오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사례는 낯설지 않다.

지난 3월 연세대 복지국가 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됐다. 놀라운 것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 20대(28%) 응답자가 70세 이상(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타인을 배척하는 '극단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A씨처럼 별생각

없이 오간 가벼운 말들이 모여 어느새 배제와 혐오의 일상을 채우면서다.

극단적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면서, 이는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정서와 언어 습관이 국수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성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면에 계속 →

2 종합-‘선거 무효’ 관련 4개 단위 인터뷰

퀘스트 선본

“선거 무효 결과 수용”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정종원(Hospitality경영학 2021) 정후보

Q. 선거 무효에 대한 입장은?
결과 수용한다.

Q. 부정 투표 사안을 언제 인지했나?

개표 당일에도 전혀 몰랐다. 개표 약 1시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 “부정 투표 관련 이의제기가 있어 확인 중이며 개표가 2시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상황을 알게 됐다. 이후 개표가 끝난 뒤 몇 시간 뒤, 중선관위로부터 “퀘스트 선본원의 부정 투표 정황이 포착됐으며 당선 보류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Q. 부정 투표를 한 선본원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지인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전화로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당사자는 계속 울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중선관위에 제출된 경위서에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징계에 대한 입장은?

중선관위가 부과하는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참모진

이 밤낮없이 노력해 왔고 토요일 예비군 일정에 맞춰 인사드렸던 부분 등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상대 선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크다.

Q. 선거 관리인 부재로 생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호관대 학생회장을 맡았을 때도 대리투표 논란이 있었다. 당시 CCTV가 기표소를 가리고 있어 확인이 어려웠고, 이후 기표소가 CCTV에 명확히 잡히도록 배치하고 관리 상근자의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경험 있다. 중선관위 역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표소 설치를 최소화하거나, 상주 인력이 확실한 공간에만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조심스럽지만, 무용대 선관위가 왜 기표소를 비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연이 있었다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자리를 비울 상황이라면 NFC 카드나 노트북 잠금 정도는 조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하우 선본

“선거 전반 공정성 해쳐”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공선진(행정학 2022) 정후보
성지창(약학 2022) 부후보

Q. 부정 투표 조사 중 개표가 진행된 것에 대한 의견은?

부: 개표가 절대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대 선본 측 부정행위가 발각됐고 중선관위도 그것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개표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정: 지인을 통해 부정 투표 소식을 듣고 제보를 한 것은 맞지만, 퀘스트 선본원의 소행임은 몰랐다. 따라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개표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퀘스트 측이 “개인의 일탈일 뿐, 사주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은 어떤가?

정: 회칙에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를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어 절대 단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퀘스트 선본 소속이기 때문에 퀘스트의 총책임자인 정·부후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Q.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정: 단순 선거 결과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다만, 이러한 부정 투표 행위들은 선거 전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된 것은 유감스럽다.

Q. 선거 관리인 부재로 생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 선거 시스템 업체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중선관위가 해당 업체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 인력을 적절히 배치했어야 한다.

부: 관리 인원 수를 먼저 파악한 뒤 기표소 개수를 정해야 한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곳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에는 기존 장소 그대로 기표소를 배치해 관리 인력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무효, 재선거 없어”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엄규민(경영학 2020) 위원장

Q. ‘부정 투표’ 왜 막지 못했나?

선거 플랫폼으로 채택한 한국전자투표(kevoing)는 선관위원이 기표소에 상주하기만 하면 부정 투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선관위원이 부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겠지만 아예 몰랐기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런 지점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많은 책임을 느낀다.

Q. 향후 방지 대책은?

기표소 관리와 선거의 위중함을 선관위원들에게 더 깊이 있게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 선거 시행 세칙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별로 상이하다 보니, 단과대에게 지침을 내리

는 것은 월권이다. 중선관위와 각 단과대학의 선거 시행 세칙을 정비해 만일 이런 일이 반복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기 쉽게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확언위가 ‘선거 무효’를 의결했다. 향후 징계는 어떻게 되나?

퀘스트 선본의 경우 징계가 정해졌다.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고 공연금(선거보조금)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 투표를 단행한 퀘스트 측 선본원과 해당 일자에 부재한 무용학부 선관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미정이다. 8일 중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Q. 재선거 여부는?

재투표 혹은 재선거는 시행되지 않는다. 가장 빠른 선거는 내년 3월에 있을 보궐 선거다. 보궐 선거 이전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무용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인력 보완할 것”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강진(무용학 2023) 위원장

Q. 선관위원과 기표소 관리 미흡 원인은?

부정행위가 일어난 당일은 무용학부의 창작발표회 공연이 있어 해당 인원이 선관위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날 선관위원의 부재 또한 선관위 내부의 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역시 공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당시 상황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했으나 부족함이 있다. 이 일은 무용학부 선관위의 책임임을 깊이 인지하였으며, 사건 이후 동일한 부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운영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Q.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가?

향후 무용학부 정기 공연과 총선거 일정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관위 간의 인력을 충분히 보완해 공연 진행 업무와 선거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또한 선관위 운영 체계를 명확히 인수인계해 선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

Q.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은?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학우의 투표권이 침해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선관위의 미흡으로 선거의 신뢰성을 지키지 못한 부분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 다만, 선관위가 부정 행위 자체와 동일하게 오해되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선거 관리 공백 · 취약한 본인인증 과정

“QR 코드 이용한 선거 검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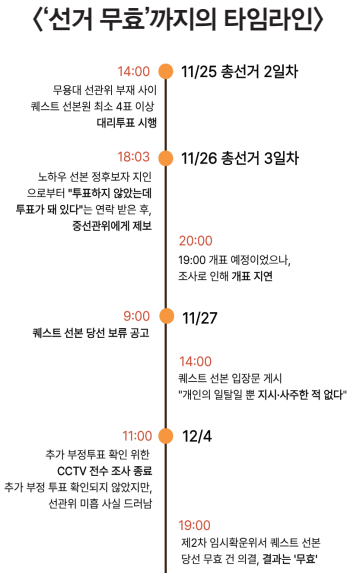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웹스트’ 선본의 당선이 보류됐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선관위) 부재와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 등 선거 전반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우리신문은 현행 선거 관리 방식과 타 대학 사례를 비교 · 점검했다.

현행 방식, 본인인증 허점 드러나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했다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에선 전자 투표(모바일·PC)와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했다. 전자투표는 유권자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고 개인 번호로 인증 번호를 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투표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불거진 오프라인 투표는 본인인증 절차가 전자투표와 다르다. 기표소에 방문한 유권자는 인포 21 또는 실물 학생증을 기표소 선관위원에게 제시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이후 선관위원이 유권자에게 NFC 투표 카드를 지급한다. 유권자는 카드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간다. 기표소 내 NFC 인식 장치에 카드를 찍으면 즉시 태블릿 PC에 뜨는 후보자 중 한 곳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번 투표 기간 무용학부관에서 발생한 ‘대리 투표’ 사건은 이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확인하는 선관위



관리가 부재해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웹스트 선본원이 타인의 학번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NFC 투표카드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대리 투표를 행한 거다. 무용대 CCTV 조사 결과 투표 기간 해당 선본원이 선관위 노트북을 만지고 기표소 내부에 8회 출입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를 맡은 전자투표 업체는 ‘한국전자투표(kevoting)’다. 해당 업체를 선정 이유에 대해 엄규민(경영학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선관위장)은 “해당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 오면서 설명이나 시스템 구축 등을 도와줬다는 점에서 신뢰를 느꼈다”며 “선거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관위만 잘한다면 문제없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신문에 밝혔다. 한국전자투

표는 2017년 설립돼 대기업 내 선거, 정당 경선 선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다. 업체는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 투표 서비스를 맡으며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오프라인 기표소에 설치되는 투표 기기, NFC 카드 제공 등을 담당했다. 우리학교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NFC 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담당해야 했는데, 이 점에서 허점이 발생한 거다.

선거관리인원 부재가 주요 원인
선거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결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이번 선거에서 ‘대리 투표’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 셈이 됐다. 올해 기표소가 설치된 건물은 캠퍼스 내 총 11 곳이었다. 기표소마다 선거 관리 인원이 투입되는데, 단과대는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청운관은 후마니타스칼리지위원회(후칼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복기숙사는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가 담당했다.

그러나 부정 투표가 발생한 무용대 기표소에는 담당 관리 인력이 투표 첫날인 24일 오전 9시경, 둘째날인 25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선거관리위원이 부재했음이 CCTV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기표소 CCTV 전수조사 결과 무용학부관을 제외한 기표소에서는 부정 투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용학부 강진(무용학 2023)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장)은 “부재한 당일은 무용학부 3학년 공연 당일 이었는데, 해당 인원이 선관위원으

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했으나, 동일한 시간대에 업무가 몰려 선거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과 단과대 선거 세칙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관리 책임 혼선을 불렀다. 엄 위원장은 “각 단과대 별로 선거 시행 세칙이 존재한다”며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과 상이하다보니, 각 단과대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중선관위 측은 선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엄 위원장은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 선거를 분리하면 관리 주체가 명확해진다”며 “우리학교도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균관대는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 선거를 분리 운영해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하우 선본 성지창(약학 2022) 부후보는 “장소를 먼저 배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도 대응이 어렵다”며 “오히려 인원을 먼저 배정하고 그에 맞게 투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운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적인 건물 몇 개에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은 온라인 선거로 전환
“QR 코드 이용한 선거 검토 중”

서울캠과 같은 기간에 학생회 선

거를 진행한 국제캠의 경우 전자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하지 않고, 단일한 방식의 투표 방식을 적용했다. 모바일 본인인증과 현장 투표를 혼합한 방식이었다. 본인 인증 절차는 개인 휴대폰 문자 링크 접속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유권자는 각 투표소에서 선관위 집행부로부터 고유 OTP 코드를 받고 기표소에 입장하는 방식이었다. 기표소 내부에 들어가면 OTP 코드를 입력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타 대학은 오프라인 선거를 없애고 온라인 선거로만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선거만 진행한다. 서울과기대 김영현 부총학생회장은 해당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 투표 시 미리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단국대 역시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단국대 총학생회는 “웹정보시스템을 이용한 100% 투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중선관위장은 오프라인 기표소를 아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다. 엄 중선관위장은 “학생들이 모두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인포에 기입된 전화번호로 알림톡을 발생하는데, 특히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끔 한국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유학생 국가의 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가 있어서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는 우리학교처럼 온라인·오프라인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나, 기표소 내부에 부착된 투표 링크 QR을 통해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투표임에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엄 중선관위장도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기표소에 QR 코드만 배치해 전면 온라인 선거로 진행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5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

12. 29. (월) 10:00 ~ 17:00 호텔ICC 대전

- 기술교류회
- 일자리박람회

- 지원사업 설명회
- 채용설명회(전력공기업 등)

- 원자력 유관기관 사업 설명회
- 특별강연(유튜버 ‘궤도’)



<신청하기>



4 기획

1면에서 계속 →

정치적 이념에 벗어났어도
혐오·조롱 언어는 ‘극우’라 볼 수 있어

극우는 극단적인 우익 사상을 가진 정치적 이념을 칭하는 용어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그 기준은 훨씬 흐려져 있다. 혐오·조롱·편파와 같은 표현 그 자체가 타인을 향한 적대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홍지오(사회학 2022) 씨는 에브리타임(에타)과 같은 커뮤니티가 편 가르기의 온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에타에서 논리가 결여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 쓴 것 같은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주 봤다”며 “익명성 뒤에 숨은 성별, 문·이과, 학과 간 갈등 같은 편 가르기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이덕수(미디어학 2020) 씨도 “에브리타임에서 보수 진영을 ‘내란권’이라고 부르고, 진보 진영을 ‘배급권’이라고 폄하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비평가 이택광(영문학) 교수는 극우 개념을 “정치만이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도 정의할 수 있다”며 “극우는 학술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시즘에도 정치적 체계로서의 파시즘과 생활 방식으로서의 파시즘이 있다”며 “한국 정치 체제는 극우화의 최악은 피했지만, 일상에서는 극우 형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치 체제의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더라도 일상 속 극우가 사라지지 않으면 정치 체제 역시 언젠가 극우적 위협에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극우를 하나의 정치 성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극단화, 타인에 대한 적대감, 배제적 언어의 일상적 사용이라는 정서적 기준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화가 혐오·차별 정서로
배타적 성향이 극우화 부추겨

청년들은 스스로를 극단적 성향과 거리가

먼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판단은 의외로 극우적 정서와 닮아있다. 김태훈(사회학 2022) 씨는 “의식적으로 혐오 표현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형진(정치학) 교수는 “한국 극우 정서는 외국 극우와 결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임 교수는 “극우 특징 중 하나는 약자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 것인데, 최근에는 중국을 향한 혐오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조별과제에서 처음엔 모두를 챙기고 싶었으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외국인 학생과 함께 하기를 꺼리게 됐다”며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점수를 받아갈 땐 분노가 조금씩 쌓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 안의 작은 극우성’은 누군가를 명확한 적으로 삼거나 특정 이념을 따르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적 단정, 타자에 대한 거리두기, 무의식적 배제 같은 작은 감정적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밈’처럼 소비되는 극우 표현
미디어 교육은 부재해

‘툼툼’, ‘OO충’, ‘원래 OO들은~’ 최근 대학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다. 처음에는 농담, 소위 말하는 ‘밈(meme)’으로 시작됐지만, 반복되고 소비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최승우(물리학 2020) 씨는 “대상자가 친한 친구라면 서로 재밌게 놀리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

툼툼도



일베 용어?

다”고 말했다.

김윤철(한국정치)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교육 공백과 감정 자극 콘텐츠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김 교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성이나 민주주의 감수성을 기르는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안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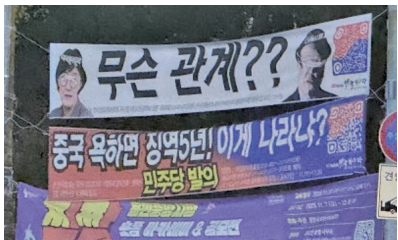
김 교수는 특히 유튜브 등에서 유통되는 극우 콘텐츠가 청년들의 정서와 언어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극우 유튜브는 돈을 벌기 위해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 편에 서기 쉽고, 자연스럽게 극단적 표현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밈처럼 소비되는 표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서적 극단화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다.

이처럼 청년들의 언어와 정서 속에 스며든 극우 정서는 단순히 말투나 농담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감정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서가 왜 청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경쟁과 불안, 사회적 고립, 능력주의, 온라인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다음 2회차에서는 이러한 청년 세대의 구조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극우적 감정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 인근
혐오 현수막
난립해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지난 보름 동안 국제캠 정문 앞에 붙은 혐오 현수막 사진. (사진=김예찬 기자)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이게 나라냐?”, “무슨 관계?(대통령,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 지난 보름 동안 국제캠 정문 앞에 붙은 현수막이다.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분류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됐음에도, 양캠 인근에는 여전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기흥구청은 “정문 앞 두 현수막은 정당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구청 용역반이 매일 지정 코스를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은 현행 규정상 동별 최대 2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개정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천고등학교 재학생 심호진 씨는 “현수막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와 별개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2026 신·편입생 ‘다전공’ 필수…인프라 부족 목소리도

강다윤 기자 rkdekdbbs@khu.ac.kr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다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가 개편된다. 현재 1학년인 2025학번을 포함한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편입생 중에도 의학·간호·약학계열(약과학과 제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전공 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다전공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입학 정원의 50%로 이내로 다전공 선발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최소 선발 인원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며 “곧 규정 개정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기준에는 최소 선발 인원 없이 각 학과 별로 입학 정원의 최대 30%까지만 다전공 수강 인원을 선발할 수 있었다.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다전공 진입을 받는 학과에서는 ▲다전공 신청 인원의 70% ▲입학정원의 30% 중 인원이 적은 기준을 선택하고, 해당 기준 인원 이상의 학생을 다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내년 다전공을 희망하는 2025년



지난 5월 열린 2025 교육 비전 선포식에서 김진상 총장은 “내년 1학기부터 다전공 의무 이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규연 기자)

이하 학번 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단일전공에 집중하고 싶거나 다전공 정원 문제로 인해 다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부전공 또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학사지원팀은 “마이크로디그리는 현재 65개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40여 개를 신설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개편은 지난 5월 열린 ‘경

희 교육 비전 선포식’, 학(원)장회의, 총장 주재 혁신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김 처장은 “예전에는 단일 과에서 배운 것 하나만을 응용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한 분야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를 두루 배워 통섭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신 것”이라 설명했다.

개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존

재한다. 이런 지적은 주로 ▲학업 부담 가중 ▲교육 인프라 부족에 집중됐다. 이가은(글로벌Hospitality·관광학 2025) 씨는 “이번 개편으로 학업 부담이 과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기에 다전공 선수강 과목과 본전공 과목을 함께 수강하며 학업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은 “다전공 이수학점 기준이 높은 일부 학과에 대해 기존

학점 조정이 있었다”면서 “각 학과 필수과목 및 선수과목 축소, 다전공생에 대한 유사 과목의 전공학점 중복 인정 범위 확대, 다전공 이수학점 기준 조정을 통한 학업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진 내 우려 목소리도 있다. 경영대학 박용승 학장은 “다전공 이수 인원이 늘어나면, 여러 단과대에서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전임, 비전임 교원 확충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과 유재수 학과장은 “지금 바로 인프라를 확장하기는 어렵고, 당장 3, 4학년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저학년 학생들이 듣는 과목 수요부터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 요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온라인 강의 확대를 대안 중 하나로 구상 중이다. 김 처장은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직 하이브리드 강좌에 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라, 온라인 강좌를 추가 개설하는 정도로 시작할 것”이라며 “대신 교무처 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하이브리드 강좌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제2기숙사 방중 거주 기간 단축 “방중 활동 참여 위축 아쉬워”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2월 방중 거주가 불가능한 제2기숙사가 또다시 거주 기간을 축소했다. 이에 더해 계절학기가 끝나고도 학교에 남아있고 싶은 제2기숙사·우정원 입사생 사이에서 ‘방중 거주 제한’ 자체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계 방중 입사 안내에 따르면 제2기숙사는 내년 1월 17일까지 거주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지난 2년간 동·하계 방중 거주 기간은 ▲계절학기 기간을 포함한 약 3주 ▲약 4~5주 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다가올 동계 방학부터는 ▲계절학기 포함 약 4주로 선택지가 단일화됐다. 제2기숙사 행정실은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이유로 설명했다. 이

어 “이번 방학에는 내측 방의 책상 교체 작업이 예정돼 있는데, 가구 교체는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해보다 방중 기간을 다소 줄였다”고 덧붙였다.

국제캠 기숙사 2곳(제2기숙사·우정원)의 방중 거주 제한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캠(행복기숙사·세화원)은 방중 기간 전체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화원의 경우 잔류를 신청한 학생 중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는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같은 방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이는 양 캠퍼스 간 상이한 기숙사 별 운영 방식에 따른 것이다. 행복기숙사 서주희 담당은 “국제 기숙사는 학교 운영, 행복기숙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어서 시스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유진(중국어학 2024) 씨는 “방학 동안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참여할 수 없어 아쉽다”면서 “실제로 작년 겨울에 학생회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미 본가에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급하게 기차표를 구해 면접을 보러 갈 수 없어 불가피하게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재빈(소프트웨어융합학 2025) 씨는 “방중에도 일주일에 5번은 학교에 와야 하는데 다행히 할머니 댁이 인근에 있어 임시로 머물 곳은 있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준영(원자력공학 2021) 씨는 “학부 연구를 하고 있어 방학에도 연구실 출근을 해야 한다”며 “함께 출근하는 친구들 중 멀리 사는 친구들의 경우, 방학 동안 거주할 곳이 없어 필수적으로 자취방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2월 방중 거주가 불가능한 제2기숙사가 가구 교체로 인해 다가올 동계 방학 거주 기간을 축소했다. (사진=대학주보 DB)

고 말했다.

제2기숙사 행정실은 “2월에도 학생들이 쉼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숙사도 있겠지만, 2월 입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기간별로 인원을 따로 모집하는 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며 “기숙사마다 위치, 수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이 상이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우정원 사감실은 “학생들이 퇴사한 이후에 고장 나서 수리 혹은 교

체가 필요한 항목들이 생겨나서, 학생들이 없는 2월에 시설 정비와 청소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입사 과정에서 자격 심사나 기숙사비 납부, 여러 행정 문서를 처리하다 보면 그 기간만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2월에도 거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소수 있다 보니 그런 수요를 반영하고 싶지만, 2월 기숙사 재정비 기간에 그런 절차까지 모두 거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6 종합

“연구 · 교육 · 행정 전반에 지원 강화할 것”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약 1년 간의 공백 끝에 박하일(무역학) 교수가 기획조정처장에 취임했다. 신임 기획조정처장을 만나 대학운영의 비전, 예산 확보 방안 등 향후 추진 목표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기획조정처장을 맡게 된 소감과 임기 내에 해결할 현안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다고 느낀다. 대학의 전략과 비전을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도가 60%에 육박해 타대학 대비 높다. 임기 내에 등록금 의존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 싶다. 또한 학생·교수·교직원 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강점을 강화하겠다.

Q. 이전에 교무처장직을 수행했는데, 기획조정처장으로서 관점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교무처장 시절에는 교원 인사나 학사제도 등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조처장으로서 대학의 전략·재정·인사·평가를 아우르는 더 큰 경영의 흐름을 바라보게 됐다. 다만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박하일 기획조정처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본부 차원에서 거교적 팀을 꾸려 BK 사업 등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김규연 기자)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교무처장직과 기조처장직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Q. 대학운영 비전은 어떤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보는지?

우리학교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탁월성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이 국내 최상위권,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교육의 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K-DX 시스템(대학 위상 집중 대응 지표별 성과 모니터링 및 교내 데이터 공유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내년 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연구, 행정 등 대학의 모든 현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제도적·행정적

처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기반을 확충하며 목표에 다가가겠다.

Q. 최근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6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6위를 지켰지만, 최상위권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 연구 성과와 취업·진학률, 대외 연구비 수주 등 여러 지표에서 격차를 좁히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대학은 교양교육을 선도해 왔음에도 인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대학의 인문학은 매우 훌륭하며, 전통적 강점으로 자리 잡아왔다. 다만 이 훌륭함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인문학 교

육의 방향도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Q. 무전공 확대부터 다전공 필수화까지, 학사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대비는?

학사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를 최대한 총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과 온라인 강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 학과로 무전공 학생이 몰릴 경우 해당 학과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당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기존 자율예산배정산식과 별도로 보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다전공 필수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Q. 올해 등록금이 5.1% 인상됐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현재 재정 상황과 정부 정책, 구성원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다.

Q.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예산 확보 방안 이외에 다른 예산 확보 방안이 더 있는지?

BK 사업 등 국고로 진행되는 자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 본부 차원에서 거교적으로 팀을 꾸려 프

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많은 문제가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위한 전략 기획은?

공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각각의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유·무효 공간의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공간 배정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공대 분관처럼 신규 건물 건립도 단계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어떤 건물이 우선적으로 건축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Q. 기획조정처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학령 인구 감소, 대학 간 경쟁 심화 등 우리학교가 직면한 환경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학교이고, 여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경험도 갖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더 나은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함께하고 싶다. 물론 다른 대학들 역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멈추지 않고 함께 달려야 한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구성원들과 함께 쉽 없이 달려가고자 한다.

재수강 가능 성적 기준 B- → C+
취득 가능 최대 성적 A+ → A0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내년 1학기부터 재수강 제도가 개편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수강 가능 성적 C+ 이하로 제한 ▲취득 가능 최대 성적 A0로 하향 조정 ▲신청 시기 제한 폐지 등이다.

개편된 재수강 제도에서는 재수강 가능 성적과 취득 가능 성적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B- 이하의 성적부터 재수강이 가능했으나, C+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 역시 A+에서 A0로 하향된다. 반면, 재수강 신청 가능 시기는 완화돼 기존 ‘최초 성적 취득 후 4개의 정규학기 이내’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상이하다. 재수강 신청 시기 제한은 즉시 폐지돼,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된다. 재수강 가능 성적 및 취득 가능 성적 기준은 2026학년도 1학기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되며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취득

한 성적은 기존 재수강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신청 시기 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고학년의 반복적인 재수강으로 인한 수강신청 경쟁 과열 등의 악순환을 줄이는 데 있다.

학사지원팀은 “현행 제도에서는 재수강 신청 가능 시기를 놓쳐 재수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강 학생이 초수강자보다 성적 취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

하다는 지적도 있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타 대학의 제도 운영 현황을 참고해 신청 시기·신청 성적·취득 성적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대학별 재수강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모두 C+ 이하부터 재수강을 허용한다. 4.5 만점제를 운영하는 고려대는 재수강 시 최대 A0(4.0), 동일 교과목을 다시 재수강할 경우 B+(3.5)까지 취득할 수 있다. 4.3 만점제를 운영하는 연세대 역시 재수강 성적을 A0(4.0)까지로 제한한다. 이화여대는 이보다 엄

격하게 최대 A-(3.7)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다.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과나 은(약과학 2024) 씨는 “1학년 전공 수업에서 재수강생이 많았는데, 상위 성적을 재수강생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억울했다”며 “취득 최고 성적을 A0로 제한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환희(회계세무학 2025) 씨는 “교수님께서 C+ 이하로 성적을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재수강 가능 성적을 C+ 이하로 제한하면 재수강을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변경 전	변경 후
재수강 가능 성적	B-이하	C+이하
취득 가능 상한 성적	A+	A0
재수강 신청 가능시기	최초 성적취득 후 재학중 4개 학기 이내	제한 없음

‘다자녀행복장학’ 폐지되고 ‘학생 역량강화장학’ 신설된다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내년 1학기부터 ‘다자녀행복장학’이 폐지되고 ‘학생 역량강화장학’이 신설된다.

다자녀행복장학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분위 9, 10 구간의 다자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된 교내 장학이다. 9, 10구간 학생들은 학기별로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장학팀은 폐지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장학금 정책의 확대와 소득 연계 지원 강화로 국가장학금 체계에서 가계 중심 장학의 상당 부분이 보완됐다”며 “교내에서 같은 목적

의 장학을 중복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됐으며,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2025 교육혁신 전략’에 따라 장학 체계를 학생 성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장학팀은 “기존 장학의 일정 부분을 국가지원체계에 이관하고, 교내 장학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성장 경로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행복장학의 폐지는 단순한 제도 삭제가 아닌 국가장학 제도 변화와 본교 장학 운영 방향성을 반영해 재구조화한

결과”라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성장 기회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가계 중심 장학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측은 학생 성장 기반 장학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9, 10구간 다자녀 학생을 위한 대체 장학에 관해서는 “특정 소득분위 또는 특정 유형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장학 신설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제도를 소득 중심에서 학생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진로·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역량강화장학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지급 기준은 현재 내부



장학팀은 “기존 장학의 일정 부분을 국가지원체계에 이관하고, 교내 장학은 학생들의 역량 개발과 성장 경로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대학주보DB)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장학팀은 “다자녀행복장학 축소로 발생하는 재원은 전액 학생 역량강화장학으로 재배분되며, 전체 장학 규모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장학제도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라며 “장학제도 개편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

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캠퍼스 간 장학 제도 일원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학팀은 “캠퍼스 특수성이 필요한 일부 장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학이 동일 기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2026년부터는 서울캠에서만 운영되던 ‘꿈도전 장학’과 ‘점프장학’이 국제캠에도 도입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사는게 어렵고 힘든 학생에게 장학금 가길” 회기동 할머니 장학금 50명 학생에 수여

리서영 기자 rsy1313@khu.ac.kr

단출한 옷차림의 한 90대 할머니가 집이 한가득 담긴 배낭을 메고 지난 5월 본관 건물로 들어섰다. 지팡이를 대신해 우산을 땅에 짚던 할머니는 복도에 나온 대외협력처 직원에게 “기부하러 왔다,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곧이어 배낭에서 꺼낸 비닐봉지 속에는 신문지 더미가 들어있었다. 천만 원씩 세 묶음, 100만 원 스무 묶음, 총 5천만 원의 현금이었다. 기부자는 “나는 형편이 어려워 못 배웠지만, 어려운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장학금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높은 곳에 기부해야 정당하게 쓰이게 될 것 같아서 경희대에 기부할 하니, 학생들 장학금으로 꼭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예우품과 기념사진도 거절하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났다. 기부자는 평생 파마 한 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여식 사회를 맡은 조병렬 대외협력처 차장은 “할머니는 본인의 이름도 알리지 말고,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하셨다”며 “이분을 모셔야



회기동 할머니 장학에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금이 단순한 돈이 아닌 꿈에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리서영 기자)

하지만 귀가 굉장히 어두우시기에 전화를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못하셨다”고 설명했다.

수여식은 회기동 할머니 장학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영상에는 기부자가 학교를 찾아와 기부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기부자의 얼굴이 나온 기부 당시의 사진 장면도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조 차장은 “할머니께서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장학생들만큼은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영상을 제작한 취지를 밝혔다.

김도균 대외협력처장은 기부자

가 보내온 편지를 대신해서 읽었다. 기부자는 “저는 여러분께 제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과 미래가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더 크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장학금은 단순한 돈의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표시”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최보라(조리엔푸 드디자인학 2024) 씨는 “가정 형편으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직장을 다니다 우리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었기에 도움을 주신 할머니

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유동균(정치외교학 2021) 씨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을 믿으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최근 시험을 준비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묵묵히 응원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할머니는 사는 게 어렵고 힘든 학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이 가기를 바라셨다”며 “할머니의 연세가 많으시고 방학도 다가오고 있기에 할머니의 뜻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장학생 선발을 서두른 이유를 설명했다.

정이나 팀장도 “할머니께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실 수 있게 연도별로 2,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50명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할머니의 뜻을 빨리 이뤄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회기동 할머니 장학은 250명이 넘는 지원자 중 선발을 거쳐 최종 5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장학금이 단순한 돈이 아닌 꿈에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고 다짐했다.

대학주보 편집인에 신동면교수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신임 신문방송국장(우리신문 편집인)으로 신동면(행정학)교수가 지난 21일 임명됐다.

2001년 우리학교 교수로 부임한 신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지난해 행정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또한 2014년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2018년 한국행정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신 국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바스(Bath) 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박사를 취득했다.

8 문화

유행을 넘어 문화로... 청년 사로잡은 애니메이션 현실의 고단함 넘어 마음 달래준 또 하나의 세계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⑥애니메이션 열풍

청년·학생의 문화 트렌드 기획 그 여섯 번째 순서로, 청년 세대의 애니메이션 열풍에 대해 알아본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 등 박스오피스에 일본 애니메이션 이름이 연이어 올라가며, 시들했던 극장가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우리신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들이 애니메이션을 소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례적인 애니메이션 돌풍 청년 세대를 극장으로 이끈 이유

영화진흥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귀멸의 칼날》)은 지난 9월 개봉해 약 565만 명의 관객객을 동원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다. 이어 개봉한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약 329만 관객으로 올해 한국 박스오피스 6위다. 영화진흥위원회는 “9월 외국 영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8.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애니메이션 돌풍엔 20대의 영향이 컸다. 《귀멸의 칼날》의 20대 관객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1%였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한국 영화 《좀비탈》의 20대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이동배 교수는 “극장은 ‘그냥 영화 보는 곳’이 아니라 ‘작품을 체험하는 장소’가 됐다”며 위 현상을 분석했다. 이어 “팬덤 기반 소비 구조가 자리 잡아 한 작품을 여러 번 보는 팬덤형 소비가 보편화됐다”고 덧붙였다.

굿즈 문화도 인기에 한몫했다. 국제캠 인근 영화관에서 지난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동규(컴퓨터공학 2025) 씨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분장을 하고 영화관에 방문하거나 극장 캐릭터 굿즈를 모으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스프레, 커스터마이징 등의 굿즈 문화는 OTT가 대체할 수 없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극장판 주술회전: 시부야사변 X 사멸회유》 포스터가 영화관에서 많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진=서라수 기자)

애니메이션 장르만의 매력 “포켓몬 세계가 현실이면 좋겠다”

실사 영화와 전혀 다른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가 등장하거나,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마법 세계가 펼쳐지기도 한다. 김재은(한국화 2025) 씨는 “포켓몬 세계가 현실이면 좋겠다”며 “표현의 한계를 두지 않는 애니메이션의 묘사가 실사로는 구현하기 힘든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즐겨 본 박성우(회화 2025) 씨는 “실사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연출이나 액션신이 재미 요소로 다가온다”며 “애니메이션 장르만의 특성이 많은 이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흥행은 기존 팬층에 그치지 않고, 평소 애니메이션을 소비하지 않던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하다. 소다미(중국어학 2024) 씨는 “관심

“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청년들은
애니메이션 속에서
다시 일상을 견딜
힘을 찾는다.

”

이 없었지만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진격의 거인》을 봤다”며 “유치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비현실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 사회의 갈등, 자유의 의미, 국가의 통제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어 몰입도가 매우 높았다”고 덧붙였다.

부정적이던 ‘오타쿠’문화 자신 드러내는 수단으로 탈바꿈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과거와 달라졌다. 한때 ‘오타쿠’는 일본 문화에 과몰입하는 이들을 칭하는 부정적 표현이었지만, 이제 특정 취향을 가진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에 가깝게 사용된다. 청년층은 장르 특성이나 주변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있다.

김태경(현대일본사회문화) 교수는 ‘오타쿠’라는 개념에 대해 “현대 사회는 모두가 오타쿠가 된 시대”라며 “각자 관심 분야에 열정을 갖고 소비를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문화가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여러 장르의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이 주요 콘텐츠로 부상한 것뿐”이라며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의 방향성을 성찰하고 조정할 때 비로소 건강한 취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의 오타쿠 개념에 박 씨는 “애니메이션이 대인 관계를 차단한 다기보다, 이미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나한테도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업, 취업, 주거 등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애니메이션이 지닌 서사는 청년들에게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는 시대에 청년들은 애니메이션 속에서 다시 일상을 견딜 힘을 찾는다. 이번 애니메이션 돌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을 새롭게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스하키부 박재욱 주장, “1승 위해 끝까지 달린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곱 번째 주인공으로, 아이스하키부 주장 박재욱(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를 만나봤다.

아이스하키에 대한 사랑 “언제나 하키 생각뿐”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아이스하키 생각만 했다는 박재욱 선수는 하키 외에는 좋아하는 운동도 없다. 졸업할 때가 되면 진로 걱정도 있기 마련이지만, 박 선수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아이스하키를 더 하며 살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키를 사랑하는 그에게도 운동은 그만두고 싶었던 때는 있었다. 박 선수는 “경기가 계속 안 풀릴 때, 슬럼프가 왔을 때, 크게 부상을 당했을 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



내년 2월 동계체전 출전을 앞둔 박 선수는 “결과를 떠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완벽한 마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 선수 제공)

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하루이틀만 쉬어도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며 마음을 다잡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스하키의 묘미는 ‘격한 몸싸움’이다. 경기 도중 선수들 간의 싸움을 용인하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관중들에겐 볼거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이 몸싸움을 박 선수 또한 아이스하키의 재미 중 하나로 꼽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겪은 부상도 많았다. 후방 십자인대

가 끊어졌고, 허리 디스크 파열과 어깨 탈골 심화까지 겪었다. 특히 심각했던 십자인대 부상 당시를 돌아본 박 선수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며 인대 강화 주사를 맞으며 6개월 만에 팀으로 복귀한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부족한 선수층 이뤄내지 못한 소중한 1승

현재 아이스하키부가 있는 대학

은 우리학교와 고려대, 광운대, 연세대뿐이다. 한양대의 경우 2019년을 이후로 U-리그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체 수순을 밟았다. U-리그가 열리는 남자부 5개 종목 중 아이스하키는 참가대학이 10개가 안 되는 유일한 종목이다. 참가대학 수 부족뿐만 아니라 아이스링크 대관도 시간적·금전적으로 어렵다. 그로 인해 한 시즌에 치르는 경기 수가 타 종목에 비해 적다. 박 선수는 “1년에 6경기 정도를 뛰는데,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선수층도 부족하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22명이, 광운대는 25명이 등록된 반면에 우리학교 아이스하키부는 17명뿐이다. 이로 인해 경기 중 체력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박 선수는 “초반엔 비등비등해도 마지막 3피리어드엔 체력 문제로 밀린 경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승리하기 위해 각자 체력 훈련에 더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절하게 노력하고 궁리했지만, 아직 대학에서의 1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박 선수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매 경기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입학했을 때보단 인원이 늘었고, 졸업 이후엔 더 상황이 좋아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대회 동계체전에 집중 앞으로는 지도자로서의 꿈도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의 미래도 그리고 있다. 대학 입학 이후, 박 선수는 학업과 아이스하키를 가르치는 일을 병행해 왔다.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는 박 선수는 “먼저 다가가야 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새내기 시절 있었던 멘탈 문제가 자연스럽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올해는 감독의 선택을 받아 주장까지 맡게 됐다. 일반인 클럽팀 대회에서는 감독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박 선수는 “선수일 땐 ‘짜릿함’을 느꼈다면, 감독일 땐 ‘뿌듯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픽(아이스하키에서 사용하는 볼)을 컨트롤 하는 방법, 스케이트를 더 빨리 타는 방법을 가르쳤을 때 성장하는 게 보이면 직접 땀 때와는 다른 기쁨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2월에는 박 선수가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동계체전이 열린다. 시합에 집중하기 위해 박 선수는 클럽팀 감독직도 내려놨다. 박 선수는 “결과를 떠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완벽한 마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의 희망을 품은 탑, 평화교육을 일군 한 마디

장현석(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⑥ 『광릉캠퍼스 평화의탑』

경희의 캠퍼스 곳곳에는 여러 형태의 탑이 세워져 있다. 탑에 새겨진 글귀와 조각에는 경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서울캠퍼스 교시탑,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 오벨리스크, 광릉캠퍼스 평화의 탑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평화의 탑은 평화복지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평화의 탑은 1990년 9월 18일 제9회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해 평화복지대학원 본관 서측 언덕에 건립되었다. 높이 10m의 탑 상단에는 한반도를 정면에 둔 지구와 그 위로 비상하는 평화의 비둘기가 자리하



평화의 탑 제막식에서 1986년 전달된 평화의 횃불을 탑신 양옆의 성화대에 옮겨 점화했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고, 탑신 전면에는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유훈인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1981년 6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6차 IAUP(세계대학총장회) 총회에서 설립자가 발표한 기조연설 제목이다. 당시 그는 ‘세계 평화의 날·

해’의 UN 제정을 제안했는데, 코스타리카 정부를 통해 그해 11월 제36회 UN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경희는 평화운동을 실천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4년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했

다. 한편 탑신 후면에 새겨진 ‘지구촌·인류가족·세계공동체’는 설립자가 주창한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의 핵심 개념으로, 경희가 지향하는 평화로운 세계의 이상을 보여준다.

탑신 앞에는 평화를 환영하듯 두 팔을 벌린 날개 달린 여신상이 서 있다. 기단 전면에는 무궁화가, 후면에는 경희인을 상징하는 목련이 꽃봉오리에서 만개에 이르기까지 네 단계로 표현되어 있다. 마치 이 땅에서 시작된 경희의 평화적 지향과, ‘지구촌·인류가족·세계공동체’를 구성할 인재의 성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탑신 양옆의 향아리형 성화대이다. 하나는 ‘세계 평화의 날 제정 기념’, 다른 하나는 ‘평화의 횃불 봉송 점화 기념’이라 새겨져 있는데, 이는 1986년 세계평화의 해를 기념하여 UN이 기획한 ‘세계 일주 성화 달리기

(First Earth Run)’와 연결된다. “인류에게 기회를, 어린이에게 평화를”이라는 슬로건으로 39개국을 순회하는 이 행사에서 ‘평화의 횃불’이 11월 15일 밤 한국에 도착했고, 이튿날 여의도에서의 기념식을 거쳐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성화를 밝혔다. ‘세계 평화의 날·해’ 제정에 경희가 이바지한 덕분에 가능했던 장면이었다. 이 불꽃은 1990년 평화의 탑이 세워지고 양옆의 성화대로 옮겨져, UN에서 출발한 평화의 염원이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사진 3).

이처럼 평화의 탑은 경희의 평화를 향한 여정과 교육적 비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하나의 형상으로 응축된 조형물이다. 단순한 기념 구조물이 아니라, 경희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추구해 온 평화적 가치가 오늘날 캠퍼스 공간 속에서 계속 숨 쉬고 있음을 증언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선수단 뒤 또다른 팀…대학 스포츠 움직이는 ‘프런트’ 마케팅 · 홍보 · 전력분석, 지방 원정도 마다하지 않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대학스포츠 시즌이 막을 내리고 있다. 올해 축구부 추계연맹전 우승, 대학핸드볼통합리그 우승 등 괄목할 만한 선수들의 활약 뒤에는 ‘프런트’의 숨겨진 조력이 있었다. 프로 못지 않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운동부 프런트는 홈경기 준비, SNS 홍보, 선수단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신문은 한 해 동안 선수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다해준 프런트를 조명한다.

프런트에 모인 이유

진로 연계, 스포츠에 대한 열정

운동부 프런트는 중앙동아리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선수단 관리와 운동부 관련 마케팅 활동이며, 외부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대외 협력도 맡고 있다. 스포츠 산업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은 ‘스포츠 마케팅’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프런트로 모이게 하는 동력이 됐다. 2021년 창설된 농구부 프런트 ‘KBF’는 ‘일반 학생들에게 스포츠 마케팅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안고 출범했다. 올해 2월 출범한 핸드볼부 프런트의 유은혜(중국어학 2022) 회장 역시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 시작했다”고 말했다.

입단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프런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마음도 있다. 바로 ‘선수들을 향한 애정’이다. 구성원들은 종목을 막론하고 “우리 선수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입을 모았다. 야구부 프런트 ‘쿠라운드’의 전예주(스페인어학 2023) 회장은 “프로야구의 인기가 절정인데, 대학야구는 그와 동떨어진 상황”이라며 “프런트 활동의 목적은 선수단을 더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부 프런트 김원(스포츠의학 2023) 회장은 “48년 만의 추계연맹전 우승 직후, 인스타그램 릴스를 평소보다 더 올리는 등 우승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홈경기 없는 운동부

지방 출장은 일상

프로경기장을 연상시키는 국제캠 선승관은 농구부와 배구부의 홈



①선승관 홈경기날 티켓과 클래퍼를 나눠주고 있는 농구부 프런트 KBF ②중국 전지훈련 연습경기를 촬영하고 있는 핸드볼부 프런트 ③경기 회의를 진행 중인 야구부 프런트 쿠라운드 ④48년 만의 추계연맹전 우승을 함께한 축구부 프런트



(사진=각 프런트 제공)

경기장이다. 농구부 KBF가 우리 학교 최초의 프런트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U-리그 홈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선승관 홈경기 날이면 프런트도 분주해진다. KBF 정인(체육학 2022) 회장은 “경기 시작 2시간 전 출근해 팀별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선수관리팀은 전력분석 자료를 기자와 해설위원에게 전달하고, 프로모션팀은 관중 안내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SNS팀은 경기 당일 게시물과 이후 콘텐츠로 활용할 자료를 촬영한다. 선수·감독·코치의 대형 현수막 역시 프런트가 직접 기획·제작한 것이다. 정 회장은 “SNS팀이 시즌 개막 전 선수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현수막과 슬로건도 직접 만든다”고 말했다.

프런트 소속 장내아나운서는 오프닝 멘트와 하프타임 이벤트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교내 응원단 ‘컬스라’와의 협업도 홈경기 분위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다. 경기장에서 흘러나오는 응원가는 선수관리팀이 선수들이 좋아하는 곡을 조

사해 제작한 것으로, 사소한 것 하나부터 프런트의 손길이 묻어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반면 홈경기가 없는 운동부에게 KBF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지방 출장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U-리그 종목이 아닌 핸드볼은 대부분의 경기가 지방에서 열리는 단기 대회로 구성돼 있다. 중계 환경도 좋지 않아 사실상 프런트가 핸드볼부의 유일한 소식창구다. 핸드볼부 프런트 유 회장은 “지방 출장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했지만 “대회장에서 선수 부모님들이 ‘덕분에 아이들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게 원동력이 된다”고 전했다. 야구 경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원주·횡성에서 주로 열린다. 쿠라운드 정아름(태권도학 2020) 미디어홍보팀장은 “멀지만, 선수들의 현장 인터뷰 영상을 찍기 위해 지방 경기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축구부 김 회장은 지난여름 추계연맹전 우승 당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교통, 숙박 예약을 길게 해뒀다”고 말했다.

관중석 없는 국제캠 야구장 “관중 있는 경기 열고 싶어”

프런트는 단순한 팀 운영을 넘어 스폰서 발굴, 전력 분석, 미디어 대응 등 전문 영역까지 담당하며 역할을 넓히고 있다. 현재 농구부는 보드게임카페 ‘레드버튼 영통점’, 야구부는 카페 ‘쿠피’, 축구부는 카페 ‘모카팩토리’와 스폰서십이 있다. 야구부는 지난해 재학생과 지역 아동을 초청한 야구 교실을 진행하며 음료 회사 ‘밍티’의 협찬을 받기도 했다. 쿠라운드 전 회장은 “대외협력팀이 몇십 개의 제안서 메일을 보내 어렵게 따낸 기회였다”며 “스폰서십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쟁 PT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록의 스포츠’인 야구에서는 전력 분석도 프런트의 주요 업무다. 전력분석팀은 지방 대회장까지 동행해 상대 투수의 투구 습관을 포착하고 타구 방향을 분석하는 등 코치진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채운다. 농구부 역시 자체 제작한 전력분석지를 기자와 해설위원에

게 제공하고, 경기 후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에게 선수를 연결하는 등 미디어 대응을 맡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프런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캠 야구장 두 곳에는 관중석이 없어, 프런트가 더그아웃에서 선수들과 함께 앉아 경기를 지켜야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쿠라운드 전 회장은 “선수들에게 방해가 될까 눈치가 보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보러 올 수 있는 경기를 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야구부와 축구부는 “관중이 있는 홈경기장에서 경기를 여는 게 목표”라고 말한다. 축구부 선수들은 국제캠 필드하키장에서 열린 지난 ‘더 라이언 매치’ 당시 처음으로 관중 앞에 섰다. 축구부 프런트 김 회장은 “선수들이 ‘이제야 경기를 뛰는 것 같다’고 하더라”며 “지금은 경기장 규격 문제로 힘들지만, 언젠간 홈경기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11

사설

선거 관리 재설계 · 책임 규명 병행해야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사태는 단순히 한 선본원의 일탈로 규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건의 구조적 원인은 선거 관리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 있다. 부정투표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책임 묻기는 필요한 수순이지만, 본질은 선거 관리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

사건은 선거관리자가 기표소 현장을 비운 시간 동안 발생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환경은 구조적 관리 실패에서 기인한다. 선거관리자 부재,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본인 인증 절차의 허술한 설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무용대 기표소에서의 대리 투표는 관리 공백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관위원이 부재한 사이 선본원이 타인의 학번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NFC 카드를 발급받아 총 17건의 부정투표

를 행사했다. 단순히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상황 자체보다도, 관리 미흡이 즉시 심각한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스템 취약점이 선거 과정에 내재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관리 실패는 한 곳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선관위의 기표소 CCTV 전수조사 결과 경영대 기표소 역시 점심시간에 선관위원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용학부관 기표소 부정투표를 예외적 일이 아닌, 구조적 관리 허점에서 발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거 관리 혼란은 세척 운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총학생회 선거 세척과 단과대 선거 세척이 서로 상이해 기표소 관리 주체가 단일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동시에 단과대 선관위에 명령을 직접 행사할 권한은 없었다. 이러한 ‘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제한된’ 구조는 관리 실패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을 명확히 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투표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에 대한 책임 규명이다. 관리 공백을 초래한 선관위원, 세척 정비를 소홀히 한 각 단과대 선관위,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중선관위 등은 모두 사건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이를 회피한다면 학생사회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표소 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편이다. 선거기간 동안 상시로 관리 인력이 배치되도록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본인 인증 절차 역시 강화해 타인 정보를 이용한 인증이나 대리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가 개인 잘못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부정투표의 직접 행위자인 선본원 개인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부정투표를 저지른 당사자와 관련자에게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건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사회 내 선거 공정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다.

부정투표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학생사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학생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학생사회의 신뢰와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세시봉

벌써 일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1년 전, 오늘과 다를 것 없이 무난한 하루를 보내고 자취방에 돌아왔다. 인스타그램을 켜는데, 화면엔 친구들의 소소한 일상이 아닌 줄지어 날아가는 헬기들이 찍힌 영상이 나왔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침입하고 있었고, 여의도 도로엔 장갑차가 등장했다.

시대착오적인 풍경에 눈을 의심했지만 실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강풀 작가의 만화 <26년>의 도입부와 같은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군인이었던 친구가 보낸 “새벽 2시까지 못 자고 떨고 있다”는 문자처럼 나 또한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먼저 생각났던 건 가족들의 안위였다.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물었고, 부모님께선 “아들이 전역한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더 늦게 입대했다면, 어쩌면 민간인 앞에서 총을 들고 있던 TV 화면 속 군인은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도 도로 위에 서 있던 장갑차가 문득 떠올랐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시 출동했던 군인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에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일 년이’ 유명한 노랫말처럼, 벌써 1년이 지났다. 이젠 다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날의 기억이 박혀있다. PTSD는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에선 조금씩 잊히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치료할 준비를,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1야당 대표는 여전히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당사자는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입장문을 냈다.

그날 새벽, 막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지난 1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의 앞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겨울이 찾아온 서울엔 첫눈이 내렸다. 우리 삶에 앞으로 눈처럼 쌓일 기억들은 그날과는 다른 의미로 남으면 좋겠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다전공 의무이수제 도입

변화의 책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캠 가을 대동제에서 김진상 총장이 ‘내년 신입생부터 복수전공 의무화’를 말했다. 실제로 개편된 학사 제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다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게 됐다.

‘학문 분야 간 융합 교육 강화, 학생들의 진로 유연성 확대’라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관해 충분히 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번 ‘복수전공 의무화’로 다전공 신청 경쟁률이 증가하거나 특정 학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수강신청 경쟁 심화, 강의실 부족은 물론 나아가 교수진 부족과 같은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유사 사례가 있거나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에 대책을 물었으나 돌아온 답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에 그쳤다. 이미 제도 도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마나한 답변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240명 중, 약 100명이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될 상황에서 강의 수 부족이나 강의실 공간 문제는 조속한 대안이 필수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전정·소용대 주변에 있는 국제대, 예술·디자인대와 협의가 되어 남는 강의실이 있으면 대여해주는 협조 체계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이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단기간에 완벽한 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확장과 보완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과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는 현실적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실행이다.



만평 다전공 의무이수제 정착으로 가기 위한 길이 험난하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12 인터뷰

24년 만에 다시 1학년...왕은경 씨의 세 번째 ‘학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가를 꿈꿔”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hu.ac.kr
홍지우 기자 lindsey1111@khu.ac.kr

회화와 1학년
왕은경(회화 2001) 씨

우리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특별한 1학년이 입학했다. 2001학년도 회화과로 처음 입학한 뒤, 2007년 재입학을 했고, 2025년에 다시 한번 재입학을 통해 우리학교로 돌아온 만학도 왕은경(회화 2001, 만 52세) 씨다. 자퇴와 재입학,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 병환과 코로나를 넘어 다시 우리학교로 돌아온 왕 씨는 “이번에는 꼭 졸업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시 이젤 앞에 앉았다. 24년 만에 회화과로 돌아온 만학도 왕 씨를 만나 그간의 삶의 여정과 우리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 ‘재입학 기회’
세 번째 시작을 선택하다

첫 대학 생활은 1993년 단국대학교 도예학과에서였다. 복식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던 왕 씨는 자퇴 후 다시 수능을 준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진로를 고민하며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 친구가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약 2년 반 정도 강사 생활을 이어갔다. 강사 일 외에도 꽃집과 종로의 액세서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업과 진로 사이에서 방향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당시 우리학교 특차전형에 응시해 2001년 회화과에 입학하게 됐다. 하지만 첫 입학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공과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학업 방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왕 씨는 “나이가 들어 공부를 다시 하니 너무 간절해졌다”며 “그만큼 내 선택이 맞는지 계속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이 깊어지면서 잠시 학업에서 한발 물러나기로 했고, “머리를 식히고 싶어 일본으로 잠시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2007년 우리학교에 재입학해 학업을 이어가려 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의 직장 문제와 시댁의 반대 등 현실의 벽 앞에서 학업을 지속



왕 씨는 “멋있어 보이는 전시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전시가 더 좋다”며 “내 그림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거나,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이다”고 말했다. (사진=홍지우 기자)

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학업을 다시 내려놓아야 했다. 이후 남편이 일본에서 직장을 잡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왕 씨가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낸 건 코로나 시기였다. 왕 씨는 “몸이 아파 약만 먹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날들이 반복됐다”며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과거 기록이 ‘미등록 제적’이었기 때문에 마침 재입학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었다. 왕 씨는 “주변에 재입학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다들 응원해 줘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렇게 모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왕 씨는 다시 우리학교 문을 두드렸다.

배움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린 첫 학기

그렇게 다시 입학한 첫 학기, 왕 씨는 학업 우수자로 선정됐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옮겨간 수강신청 시스템을 잘못 이해해 의상학과 전공 필수인 ‘복식사’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였다. 당시 담당 교수는 “미대 학생이

이 수업을 듣는 건 처음”이라고 했고, 왕 씨는 그 말에 “내가 이 수업을 듣는 첫 미대생이라 더 잘하고 싶었다”고 했다. 방대한 양을 모두 외워야 하는 강의였지만, 왕 씨는 “시험 전날까지 달달 외우며 버텼다”고 설명했다. 만학도의 꾸준함은 곧 성적으로 드러났다. 왕 씨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경험과 진심을 담아 과제를 했다”며 “교수님들이 그런 진심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선 사례처럼, 디지털 환경은 또 다른 벽이었다. 왕 씨는 “전자출결에 이캠퍼스까지 첫 주는 완전히 멘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발표 자료도 직접 제작하는 등 “예전보다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오랜 공백에서 비롯된 실력 차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왕 씨는 “예고 출신 친구들은 5~7년씩 그림을 해온 친구들인데 나는 귀하나 그리는 데도 4시간씩 걸렸다”며 “너무 안 그려져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면 금방 고친다고 하셨다”며 “아무래도 하얀도화지처럼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왕 씨를 지도한 허수영(조

형예술학) 교수도 이러한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허 교수는 “마음에 들 때까지 같은 그림을 여러 번 다시 그리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결과의 아름다움은 캔버스에 남았고 노력의 아름다움은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입학 후 동기들과의 관계는 큰 힘이 됐다. 왕 씨는 “학생들이 너무 착하고 예뻐서 좋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라며 “나이가 많아 눈치가 보일 때도 있지만, 학교에 다시 오면서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기 김태은(회화 2025) 씨는 “인생의 선배로서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고,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전했다.

예술로 이어가는 새로운 목표
“이번엔 꼭 졸업하고 싶다”

현재 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화상을 작업하고 있다. 왕 씨는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왔는데, 요즘에는 내가 아예 가면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지낼 때는 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입에 달고 살아야 했던 ‘스미마생’이라는 말이 사회적 규범

을 강요하는 일종의 가면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왕 씨는 이러한 경험을 가부키 가면 이미지로 형상화해 자신의 모습에 투영했다. 왕 씨는 “그동안의 삶을 솔직하게 마주한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왕 씨가 다시 예술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왕 씨는 “멋있어 보이는 전시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전시가 더 좋다”며 “내 그림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거나,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이다”고 말했다. 왕 씨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가’를 꿈꾸고 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꼭 졸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에는 일본 도쿄 조형예술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다시 공부를 고민하는 학우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왕 씨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인생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도 또 다른 길이 보인다”고 조언했다. 스물네 해를 돌아 다시 1학년이 된 왕은경 씨는, 이제 하얀 캔버스 위에 세 번째 청춘을 천천히 그려가고 있다.